



www.newsdream.net

제8호 2015년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환경부가 인정한 계곡 트래킹 명소 ‘울진 왕피천’

429 재보선 여야 대진표 드러나

인권유린 강제개종교육
사회적 파장확산

군가의
시가 있었다

?

광주서구을 재보선 대접전... 전국적 관심 집중

새누리당 정승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 무소속 천정배 후보, 정의당 강은미 후보



가계부채비율 10년 연속 상승

통합반대 신입생 희소대회
27일 금요일 오후 1시
미금원

건국대 영화과 무슨 일이?

신천지 이단이라면서
후원 받은 기독언론사



보훈특집-항일 독립운동가 집안 경주 최부자집, 최준 선생

(사)죽변발전협의회 비대위의 앞날은?
27명의 비대위 이사진과 잘못된 정관수정이뤄낼지 주목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



강원 산채약초
산업 진흥시킨다

사랑을 노래하는
봄햇살처럼 따뜻
한 가수 장보윤

4·29 재보선 여야 대진 드러나

[김영호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 등으로 치러지는 4.29 재보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4곳 가운데 1곳 이상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야권연대의 책임을 둘어 광주에서는 제 2의 이정현을, 서울 관악을에서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3곳도 승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 서구을 지역에 배수진을 친 모양새다. 이는 천정배 전 장관이 탈당에 이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패배할 시 사실상 호남 민심이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지기반의 중심지역인 광주에서 1석을 거두고 수도권 2개 지역구 가운데 최소 1석을 얻어야 그나마 본전을 거둘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통합진보당 후보들은 당 해산으로 잃은 의원직을 다시 찾겠다는 각오로 나서고 있지만 야권연대 없이는 승리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서울 관악을, 정동영 불출마로 오리무중

통합진보당 해산 등으로 치러지는 4.29 재보선에 출마할 여야 후보들의 대진이 확정됐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4.29 재보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해 최종 입장장을 정리함에 따라 서울 관악을은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와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정의당 이동영 후보와 과거 통합진보당이었던 이상규 무소속 후보, 노동당 나경채 대표, 보수논객인 변희재 씨도 무소속으로 선거 채비를 하고 있다.

정 전 장관은 26일 오후 김세균 국민모임 상임공동위원장과 만나 “국민모임이 말씀하시는 뜻은 이해하지만 불출마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나면서 했던 밀알이 되겠다는 입장을 현재로서는 번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악을 지역은 새누리당 의원은 단한명도 탄생하지 못했다. 1988년 국회 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이후 이해찬 의원이 야당 소속으로 출마해 2008년까지 5선을 역임했다. 이후 제18대 국회에선 통합민주당 김희철 전 의원이, 19대 국회에선 통합진보당 이상규 전 의원이 당선되면서 진보적 성향이 짙은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하지만 휴면리 서치가 여, 야 후보가 확정된 첫 주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



과 주요 후보 대상 지지도의 경우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의 지지도가 38.4%로 1위로 나타났다.

국민모임 정동영 전 장관이 28.2%

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 2위로,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는 24.4%의 지지도를 보여 야권의 아성으로 여겨지던 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승

리를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 전 장관의 불출마로 이 표심이 어디로 갈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때문에 가장 많은 후보군이 형성돼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했다.

광주 서구을, “호남기반 새정치연합 물러설 곳 없다”

광주 서구을에서는 새누리당 정승전 식약처장, 새정치연합 조영택 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전 광주시의원, 무소속 천정배 전 의원, 옛 통진당 출신의 무소속 조남일 전 민노총 본부장의 대진이 확정됐다.

새누리당은 제 2의 이정현 드라마를 재현시킨다는 방침에서 3월 26일 ‘광주 서구을 재보궐 필승결의대회’를 가졌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서구을에서 패하면 호남에서 신당론이 급물살 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으면 ‘묻지마 당선’이라는 공식은 깨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는데, 그래도 재보선은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천정배 전 장관 당선 시 호남을 중심으로 한 신당창당 가능성’에 대해 “실제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하지만 호남발 신당 논의이고 지역정당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경기 성남 중원은 새누리당 신상진 전 의원, 새정치연합 정환석 지역위원장, 옛 통진당 출신의 김미희 전 의원이 맞붙는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야권성향이 강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이 일찌감치 후보 공천을 마치고 준비에 돌입한 상태이다.

야당은 후보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선 정환석 후보가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에 비해 인지도나 지명도나 낫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새누리당도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신상진 후보를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새정치연합도 야권 강세 지역임을 활용해 유일하게 막판까지 야권단일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통진당 출신의 무소속 김미희 의원은 야권연대는 없을 것이며 통진당 해산에 대한 심판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단일화 가능성은 회박한 분위기다.

건국대 영화과, 학과통합 반대 신입생 호소 대회 개최

한승주 비대위원장 “이번 학사 개편으로 직접적인 피해 받은 신입생”

[김영호 기자] 최근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가 영화과, 영상과의 통합 개편을 하자, 재학생들이 주축이 돼 건국대 영화학과 통합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3월 19일 건국대학교 교무처의 학사개편 관련, 건국대 영화학과 신입생 및 재학생은 27 일 오후 학생회관 앞에서 신입생 호소 대회를 개최했다. 영화과 비대위원장 김승주(3학년) 학생의 성명을 시작으로 신입생 남주미 학생의 호소가 이어지고, 일감호 행진 및 통합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영화과, 영상과의 통합 개편에 대해 학교측은 “영화과, 영상과는 폐지가 아닌 통합 및 학과명 변경”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예술을 취업률에 옭아매려는 학사개편

비대위는 “건국대학교가 예술학부 영화과와 영상과를 통합한다는 학사개편안을 일방적인 통보로, 맹목적인 취업이 아니라 꾸준히 자신의 꿈을 쫓던 영화과 학생 전원에게 셋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며 “지금이라도 영화과 통합개편을 원점 재검토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건국대는 통합개편을 “사과 여려 개를 한 바구니에 담을 뿐인데”이라고 비유하며 학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영화과가 폐과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교육은 사과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키워내는 것이다. 울창한 숲을 만들어 내야하며 우리는 사과가 아닌 나무가 되기 위해 이곳, 건국대에 입학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학교 행정과 운영 및 철학을 둘러싼 문제들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학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2015학번 신입생을 모집해 새내기들에게 자신의 소중한 꿈을 빼앗아갔다고 비판했다.

또 영화학과는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해도 취업률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취업률을 기준으로 학과를 통합, 축소 운영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화에 대한 꿈을 꾸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강조했다.

3월 25일 건국대학교는 언론을 통해 “건국대, 영화학과 통합 운영이지, 폐

“건국대 학사개편 전면 원점 재검토 해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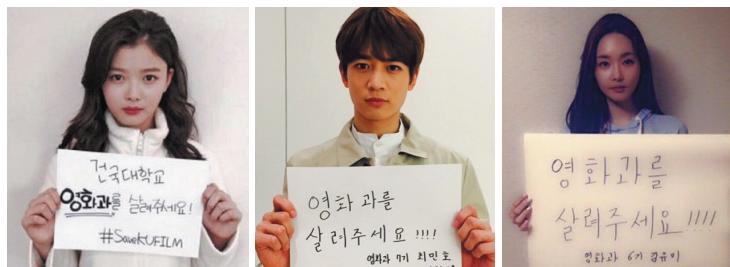
무소통, 무논리, 예술대학 탄압 #saveKUFILM
건국대학교 영화과를 살려주세요

통합반대 신입생 호소대회

27일 금요일 오후 1시

학관앞

비상대책위원장 김승주(010-9211-8351)
유민우(010-7577-4353)



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비대위는 “통합이 될 경우 정원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는 단체 프로젝트 실습이 많은 영화학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학교 운영방침이다”고 주장했다.

또 “영화는 혼자 할 수 있는 예술이 아니다. 사람들이 모여 함께 만들어 가야하는 종합예술의 영역이다. 이런 과 특성 고려 없는 통합운영은 사실상 영화학과 폐지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통폐합을 불러온 학사개편안 원점 재검토 ▲질차적 민주주의를 위반한 비민주적 학사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 ▲학교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학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민주적 논의의 장 개설을 촉구했다.

건국대, 기존과 동일하게 연기, 연출, 영상(애니메이션) 등 운영 방침

해’ 입학한 것이지, 결코 단순히 ‘취업하려’ 입학한 것이 아니다”라며 “분명한 목표가 있고, 또 그것을 이뤄내기 위한 열정이 있다. 예술과 학문에는 고작 숫자와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혼이 있고, 수많은 꿈이 깃들어 했었다”고 전했다.

또 “3월 2일 신입생 입학식에 총장님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만의 능력을 갖고, 우리 자신을 갚고 닦고 싶다”면서 “아름다운 캠퍼스 안에서 더 큰 꿈, 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이끌겠다고 하신 말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영상학과 정주영(1학년) 양은 “건국대학교의 영상학과 학생으로서 당당히 캠퍼스에 들어섰다”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영상 · 애니메이션 교수님들 아래서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으며, 꿈꾸하고 상냥하신 조교님들과,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건국대학교 영상학과의 일원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었지만 영상과와 영화과는 이름만 비슷할 뿐, 다른 커리큘럼과 진로를 밟아가고 있다는 것을 신입생들도 알고 있기에 몹시 당황스러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폐합 된 이후의 상황도 상상이 가지 않고서 위기를 잘 버텨낼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이러한 자리 통해 소박하게나마 통폐합 반대운동을 도울 뿐이다”고 말했다.

교무처, 전체 학생의 미래를 위한 학사구조 개편

건국대 측은 “건국대 예술디자인대학 영상학과와 통

합해 영화 · 영상학과(가칭)로 학과명을 바꾸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연기, 연출, 영상(애니메이션) 등 트랙별로 커리큘럼을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이유로 이뤄지지 못했던 영화(연기, 연출) 분야 전임교수 충원과 함께 보다 확충된 커리큘럼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국대 측은 “건국대는 그동안 영화예술 디자인 분야 교육과 인재 양성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며 “이번 학사구조개편을 통해 건국대는 인문학, 첨단공학, 생명바이오, 경영, 예술 디자인에 이르는 다양한 학문을 중점 육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입생들, “우리의 꿈 짓밟는
영화과 통합 안돼요”

건국대학교 영화학과 신입생들은 “보다 넓은 눈으로 보고 배우기 위

이에 대해 건국대 교무처는 재정악화 등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혁신과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며 신설과 통합, 폐지라는 변화와 진통을 반복하는 것은 급변하는 환경에 살아남으려하는 몸부림이다”고 밝혔다.

또 “학사구조 개편 발표 이후 3월 20일, 24일 학생대표와 간담회, 설명회를 통해 대학의 입장과 경과를 밝힌 바 있으나 이것으로 불충분하리라 생각한다”면서 대학의 발전과 전체 학생의 미래를 위한 학사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해 줄 것을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건국대 영화학과 출신으로 이민호, 고경표, 신주환, 안재홍, 배유람, 이민기, 현아, 유아인, 혜리, 다솜 등이 있으며 이민호, 고경표, 배우 김유정 등도 통합반대에 동참하고 있다.

가계부채 비율 10년 연속 상승

[김영호 기자] 최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4.2%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이 심각한 채무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 비율은 2003년 신용카드 사태 이후 2005년부터 10년째 계속 상승하고 있다.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해 가계소득 3.7%, 가계부채 6.2% 증가

통상 국가 간 가계부채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국민계정상 개인순처분가능소득(NDI: 이하 가계소득) 대비 자금순환동향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계부채 비율을 활용한다.

한국은행 자금순환동향 상 가계부채는 작년 말 1295조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대비 75조 4천억 원(6.2%) 들어 난 것으로, 연간 GDP(1485조원)의 87.2%에 달한다.

반면 가계소득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789조로 분석됐다. 따라서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 말 160.3%에서 164.2%로 3.9%p 들어났다. 2010년(4.8%p)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태의 여파로 2002년 124.8%에서 2004년 119%로 5.8%p 하락했다. 그 이후 2005년부터 내리 10년째 상승하고 있다. 이는 매년 4.5%p씩 상승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0년 동안 가계부채는 연평균 8.3%의 속도로 증가해 가계소득 증가율(4.9%)을 상회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OECD 평균 133.5%보다 31%p 높은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23.7%p 증가했다.

이에 비해 OECD 주요 선진국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부동산버블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폭은 네덜란드 다음으로 높고, 증가율(17.7%)은 OECD 국가 중에서

지난 해 가계소득 3.7%, 가계부채 6.2% 증가
김기준 의원, “가계대출 총량규제 강화해야”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구분	가계부채 비율*	가계부채 비율**	가계부채* 증가율	가계부채** 증가율	가처분소득 증가율
2008	120.7	144.3	8.7	8.8	6.0
2009	124.8	149.2	7.3	7.3	3.7
2010	127.7	154.0	8.7	9.6	6.2
2011	131.3	157.4	8.7	8.8	5.7
2012	133.1	159.3	5.2	4.9	3.8
2013	134.2	160.3	6.0	5.6	5.0
2014	138.0	164.2	6.6	6.2	3.7

*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 비율, ** 자금순환동향상 가계부채 비율



주요 OECD 국가의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p)

구 분	2002(A)	2007(B)	증감(B-A)	최근(C)	증감(C-B)	증감률(C-B)/B
미국	1124	143.1	30.7	114.1	-29.0	-20.3
영국	142.0	187.1	45.1	154.0	-33.1	-17.7
스페인	94.5	150.7	56.2	131.9	-18.8	-12.5
독일	113.9	102.8	-11.1	93.9	-8.9	-8.7
일본	139.5	133.6	-5.9	129.2	-4.4	-3.3
포르투갈	121.6	145.7	24.1	145.4	-0.3	-0.2
프랑스	77.5	96.6	19.1	104.2	7.6	7.9
네덜란드	200.3	257.3	57.0	281.8	24.5	9.5
이탈리아	59.3	80.2	20.9	90.2	10.0	12.5
한국	124.8	140.5	16.8	164.2	23.7	16.9
OECD평균		130.5		133.5		

* 출처: OECD, 한국(14.4q), 일본(12.4q), 기타(13.4q) 기준

** 국제 비교를 위해서 가계 가처분소득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국민계정 제도부문상 개인부문의 순처분가능소득(NDI), 가계부채는 개인부문 가계부채의 총합

*** 자금순환표상 개인부문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를 말하며, 가계는 일반가계와 소규모 개인사업자(간판장부대상자)를 포함하며, 비영리단체는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 비영리단체를 말함.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비율은 지난해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서 제시한 가계부채 핵심 관리지표다.

정부는 당시 “가계소득과 성장을 격차를 축소해 2017년까지 이 비율을 현재보다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는 2013년 말 160.3%에서 2017년에는 155.3%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3년 동안 평균 비율을 8.8%p 낮추

어야 한다. 매년 3%p 낮추어야 하는데, 현 주세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계대출 총량규제 강화해야”

이에 김기준 국회의원은 “정부는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4%p 상승했다”면서 LTV·DTI 완화 등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부양정책과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민

간소비를 제약하는 임계치에 이르렀다면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DTI 규제를 강화하거나 고위험대출 BIS 위험가중치 상향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의 가계대출이 직전 5년간 가계소득 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부분을 자급준비금 형태로 적립하거나 분담금(가칭, 가계건전성분담금)을 징수하는 등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조종애 기자] 정부는 3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성폭력 발생 대비 미검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군대나 대학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각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조직 내 성폭력은 국토방위를 맡고 있는 군대나 학문의 전당인 대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큰 저해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이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4대 악 근절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핵심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군대, 대학교, 공직사회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들로 구성되었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엄중 처분 = 정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것으로 법률 개정(국가

공무원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연 퇴직사유는 (현행) 금고 이상 형벌 → (개정)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 형벌로 기준이 되는 벌금액 등은 인사혁신처가 마련 중이다.

성폭력 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공·사립학교 교원을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 또한 제한시킬 예정이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및 공무원은 지위 고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 전문화된 수사체계 구축,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수사체계를 구축한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건처리 과정에 전문조력자를 참여시키고, '경찰관서-대학 성폭력 상담소'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대학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피해를 적극 발굴·수사한다.

또 경찰 수사 시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 피해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관'이 확대·운영된다. 경찰관 중에서 지정된 피



해자 보호관은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및 시설 연계, 신변보호, 사후 모니터링 등 사건 접수단계부터 사후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돋는 역할을 한다. 군대·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등 외부 민간시설과의 연계를 활성화한다.

◇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 군대 및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한 신병, 신입생 대상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군 핵심 지휘관이나 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토론회 사례 중심의 교육을 추진한다. 일반 시민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

가 한층 강화되는 등 밝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형평성, 인권침해 등 실효성 미지수 = 다만 이번 법 개정 포함되는 성범죄는 성폭행과 강제추행만 포함됐다

성매매나 성희롱 등은 빠져 있고, 기존에 있는 성폭력 특별법으로도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은 강력 처벌을 받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손정해 변호사는 "현행법으로도 강제추행이나 강간 사건의 경우는 집행유예 이상의 엄벌에 처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엄벌에 처해지고 있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며 "지금도 군대나 학교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조사로 공개가 어려운 경우가 태반인데, 이렇게 벌금형만으로도 퇴출을 시킨다면 과연 신고나 철저한 수사, 사건의 공개가 더욱 힘들어지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인권침해 논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처벌법이 없어 성폭력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게 아닌데 정부가 근본적인 고민 없이 또 한번의 보여주기식 팬질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도산업주식회사

**죽변 레미콘 공장 개업
KS, ISO 인증업체**

경북 울진군 죽변면 동해대로 5047
전화번호: 054)781-6441~3 / 팩스번호: 054)781-6440



경주기관차승무사업소 시나브로

“나눔의 가치 공유해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사업 지속 추진, 봉사의 참의미를 전파”

[김영호 기자] 코레일 대구본부 경주기관차승무사업소 시나브로 봉사회는 3월 16일 경주시 선덕여자 중·고등학교를 찾아 가서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처럼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봉사의 참의미를 전파하는 코레일 대구본부 경주기관차승무사업소 시나브로 봉사를 소개한다.

테마별 특화사업으로 체계적인 봉사 펼쳐

시나브로 봉사회는 경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주요사업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지역의 전문가, 봉사리더 등 9명을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센터 의사결정기구 주요인사로는 경주서라벌대 사회복지과 교수, 경주시장애아동센터장 등이 있으며 경주기관차 이병환 팀장이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3가지 테마활동은 ▲마음의 장애! 편견을 넘어 장애인 자활지원 Happy-SMILE ▲독거노인 사랑잇기 Happy Bubble! Happy Meal! ▲도농상생 교류의 장 1사1촌 농촌봉사 등이다.

먼저 3가지 테마활동 (Happy

SMILE)으로 장애인과 소통중심의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경주시 장애인복지관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목욕, 급식, 나들이, 서포터활동을 하

고 있다. 또 장애인 테마기자여행(경주장애인복지관, 경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을 운영하고 있으며, 꿈을 실은 희망열차 GO GO GO(우봉복지재단 어린이 60명 초청)를 운영중이다.

‘독거노인 사랑잇기 Happy Bubble! Happy Meal!’는 목욕, 급식

UJR 울진레미콘(주)
제품생산업체 ISO 9002 인증업체

울진레미콘주식회사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424번지 출하실 781-0377

(054)782-5055 / FAX.782-0085

봉사회의 끝없는 경주사랑!



지원을 통한 독거노인 기초생활여건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경주시 보훈지청과 원호세대 복욕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노인회관 이웃집급식소 등에서 독거노인 무료급식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농상생 교류의 장 1사1촌 농촌봉사’는 농촌마을, 지역단체와 농촌사랑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해 공동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사)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과 업무 협약 체결해 공동 농촌봉사활동과 관광열차 특별단체 344명을 유치해 본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지역단체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와 공동 농촌일 손돕기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경주 기관사들의 경주 사랑으로 이어져

시나브로 봉사회는 80여명의 경주 지역 기관사들이 활동하면서 경주알리기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예로 경주지역 최대 규모인 장애인복지관과 공동으로 장애인 여행을 기획해 다양한 장애인 계층으로 수혜범위 확대하는 등의 노력으로 포함 MBC 동행취재 및 ‘생방송 전국시대’ 방영으로 인한 경주 홍보를 극대화 했다. 또 꾸준한 장학사업과 기관사 아내들의 모임인 ‘미래로’와 함께 경주지역 행사의 도우미 역할도 이끌고 있다. 특히 지역학교 장학사업도 꾸준하게 펼쳐 경주시자원봉사자대회 시장표창 수상하는 등 봉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3월 16일에는 시나브로 봉사회와의 장학지원 협약을 통해 경주기관차승무사업소장(이성원) 및 시나브로 봉사회장(김장철)이 학교를 방문, 저소득층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선덕여자고등학교 3년 김시현 외 7명에게 50만원씩 400만원을 건넸다.

선덕여자고등학교 김상환 교장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며 우리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며 친환경 코레일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경주기관차 시나브로 김장철 봉사회장은 “앞으로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들을 찾아 돋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환 실무 책임자는 “경주의 기관사들이 교대로 이뤄지는 근무 특성상 활동에 제약은 많지만 좋은 일에 동참하는데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동반성장 구현이라는 비전을 갖고 소외계층과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끝없이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진 용역 인력



인력계의 신화

청소용역, 건설인력, 청소인력,
이사대행, 사무실 이전 등

박영환 TEL: 054-781-5775 / H.P: 010-8592-1411

신천지 이단이라면서 후원 받은

[박수형·장희주·김지은 기자]
 국내 대형 기독교 언론들이 일 반교인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 우면서도 재정을 후원하는 교단과 목사 개인의 이익만을 헐저 히 대변하고 있어 교계 내부에 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수년 째 한국 개신교의 교 세하락이 가속화되면서 기독교 언론의 입지도 좁아져갔다. 따라서 기독교 언론들은 소위 '이 단'이라고 비판해온 교단과 목 사들을 옹호하는 기사를 싣거나 홍보성 행사광고를 받고 있다. 국내 최대 기독언론사인 국민일보는 지난해 1월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평강제일교회 박윤식과 관련한 광고를 실었다. 국민일보는 2013년부터 달 락방 류광수와 달락방 층 교회 들에 대한 광고를 내보냈다. 마찬가지로 최근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다큐방송을 제작해 보도하고 있는 CBS기독교 방송을 두고도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CBS는 이번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8부작으로 제작해 보도하고 있다. 이는 강제개종교육 현장에서 이뤄진 사건들을 다큐형식의 제작물로 방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편집과정에서 일부분을 짜깁기해 진정한 '리얼'이긴 보단 의도적인 편집이 엿보이는 방송제작물이라는 것이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라는 긴 교단 명칭을 갖고 있는 '신천지'는 성경 중심의 신앙관을 토대로 해마다 20%씩 급 성장하고 있는 신흥교단으로 주류 기독교에서 볼 때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CBS는 이단으로 규정한 '신 천지 죽이기'에 적극 나서면서도 한편에서는 이단이라고 규정한 목사의 설교를 후원금을 받고 내보내기도 했다. CBS는 800만원의 후원금을 받고 이 단 논란 중심에서 있는 전태식 목사의 설교를 방송할 예정이다. 이는 CBS의 이단 규정 및 보도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CBS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강제개종교육 목사가 전과자?

후원금을 받은 이단 목사의 설교는 내보내고, 후원금을 내지 않는 신천지는 이단으로 몰아간다는 비판을 면 키 어렵게 됐다.

CBS, 이단이라도 후원금 내면 OK '광고에서 설교방송까지'

'신천지에 빠진...' 다큐 제작한 CBS, 돈 따라 논조 바꿔어

신천지는 OUT! 전태식 목사는 IN?

"이단성 논란 전태식 목사 설교 방송을 밀어붙이는 사측에게 묻는다. 진정 돈 때문에?"

"교회가 어려울 때 내야 합니다. 내면 또 복을 주게 됩니다. 또 복 받았다가 또 교회가 어려우면 또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내놓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줍니다..." (2015. 2. 15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설교 中)

2005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는 '교단이 수용할 수 없는 구원관과 예배관을 담고 있기에 본 교단 목회자와 성도들은 전태식 목사의 강의, 예배,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결의했다.

1. 사측은 월 8백만 원의 후원금을 받고 합동 측의 이단성 위험을 경고하는 전 목사의 설교를 CBS의 이름을 걸고 3월 10일부터 방송하기로 했다. 3월 9일 공정방송협의회가 열렸지만 전 목사의 이단성을 경고하는 노조 공방위의 주장은 사측은 단호히 무시했다. 사측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 목사 설교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어떠한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 3. 9)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고 솔직히 말하자. 교계 내외는 물론 노조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시한 체 경영진이 먼저 요청해서 시작된 '월 8백만 원짜리' 설교 방송이다. '을'을 자처한 CBS가 '갑'인 전태식 목사를 어찌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짓말을 애써 설파하지 말라. 과연 진짜 '돈' 때문만 인지, 또 다른 사(私)적인 관계 때문은 아닌지 의아할 정도다. 도대체 이런 논란 속 인물 전태식 목사의 설교가 어떻게 언감생심 CBS에서 방송이 가능해졌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2. 2015년 현재 한국교회가 CBS를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신천지 OUT, 이단과 맞서 싸우는 CBS'다. 우리는 몇 해 동안 이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다. CBS TV 다큐멘터리 <관찰보고서-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예고편부터 소셜 미디어를 통해 돌풍을 일으켰고, 한국교회는 열광하며 우리 밭언 하나 하나를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참으로 모순적인 길을 택했다. 눈앞의 수익 때문에 스스로의 브랜드 가치를 저버리는, 그야말로 '소탐대실과 근시안'이란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간부 중 누구는 "내가 다 책임진다"고 했다. 반대로 묻고 싶다. "충정은 가능하지만, 결국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닌 조직에게 돌아오는 것 아닌가?"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CBS라는 조직이 가혹하게 질 수밖에 없다. 책임의 결과는 CBS의 추락밖에 없다.

3. CBS는 한국교회와 언론의 공적인 이름이다.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이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더 이상 신학적 문맹, 이단 시비, 이념 편향, 막말 등 함량 미달 목회자의 설교가 CBS의 이름으로 방송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미 공정방송협의회에서 논의된 '설교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합의하고, CBS에서 방송하는 출연자와 직원 모두 부끄러움 없는 채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단 시비 전태식 목사가 월 8백만 원의 후원금을 내고 CBS에 유입된 과정을 밝혀라"
"방송 설교 이후 일어날지 모를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해 사측은 대안을 제시하라"
"CBS 설교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5. 3. 10
CBS 노동조합 공정방송위원회

이에 대해 CBS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CBS노동조합은 최근 '신천지는 OUT! 전태식 목사는 IN?'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단성 논란이 있는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의 설교방송을 강행하는 사측을 비판했다.

CBS는 특집 다큐 8부작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방송 2편을 월·화요일 잇따라 내보냈다. 한 이단상담소를 중심으로 지난 1년간 8대의 카메라를 통해 2천 시간에 걸쳐 관찰한 기록을 중심으로 제작했다는게 CBS측 주장이다.

1~2편 방송은 '안산 상록교회 이단상담소'에서 젊은 여성들이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단상담사에게 강제개종교육을 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여성들 모두 교육 받기를 거부했지만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 이들의 거부의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담 장

기독언론사

소인 ‘안산 상록교회 이단상담소’의 소장이 과거 강제로 개종교육을 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진용식 목사라는 점에서 개종교육의 정당성과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진 목사는 지난 2008년 타 종교 및 타 교단 신도의 개종을 강요하고 정신병원 감금을 도운 행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또 2012년 10월에는 대법원으로부터 ‘타 종교 신도의 개종을 강요하는 강제개종교육 관련 범법자’라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진 목사가 ‘하나님의교회’ 등 신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개종교육을 해 온 사실, 그 과정에서 상담 대상자의 가족으로부터 상담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이단세미나를 계속하면서 사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던 사실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조사과정에서 그가 벌어들인 개종사업 수입만 1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은 “진 목사는 강제개종교육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가정파괴 및 사회불안을 조장했으며, 타 교단을 향한 허위사실로 신도들을 혐혹하고 사리사욕을 채워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CBS 신천지 다큐, 한기총도
‘문제있다’ 규정한 전문가 출연

신천지예수교회(이하 신천지)를 비방하기 위해 제작된 CBS의 ‘관찰보고서-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일부 출연자들이 법적이나 신앙적으로 상당

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신천지 비난에 대한 주요 논거를 제시하는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전체의 객관성과 공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6, 17일 방영된 이 프로그램에서 소위 이단 상담자를 자처한 진 용식(안산상록교회) 목사와 신현욱(신천지대책전국연합 대표) 씨가 중요 멘트를 하는 전문가로 출연했다. 활동 장소 역시 진 목사가 운영하는 안산상록교회 이단상담소였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로부터 이단성 조사를 받은 경력이 있는데다 한국기독포럼 등 교계 내부에서 조차 “이들의 전횡을 두고 보아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인물들이란 점이다. 지난 2013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신천지에서 제명당한 신현욱 씨와 안식교에서 들어온 진용식 목사가 어떤 이단검증도 받지 않고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단성 의혹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진 목사의 경우 정규 학력사항란에 ‘초등 중퇴’라고 기재했는데 어떻게 총신대 입학이 가능했느냐”며 학력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홍재철 한기총 대표회장은 이들을 정식으로 파직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CBS는 노컷뉴스 보도를 통해 “한기총이 이단들과 싸우고 있는 전문가들을 소환 조사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구명운동에 적극 나서 사건을 무마시키기도 했다. 2013년 제13회 기독언론포럼에서는 “한국교회의 이단논쟁은 기독교 본질과 관계 없는 내용이 논쟁의 주제가 돼 교회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했으며 논쟁의 중점에는 소위 이단연구가로 자처하는 이들의 주관적 이단정죄가 큰 짚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 목사의 경우 강제개종교육을 강행하면서 피해자를 안산상록교회 옥탑방과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 감금방조 혐의로 2008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고, 손해를 배상한바 있다.

또한 진 목사는 2012년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불법강제개종교육으로 일부 통장에서 1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사실이 밝혀져 강제개종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행하고 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신현욱 씨의 경우, 신천지에서 2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던 중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피와 살을 먹어야 구원이 있고 총회장으로 이름으로 구해야 만 구한 것을 받는다”고 가르치다가, 성경에도 없는 내용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총회장을 우상화하고, 교주로 만들려다가 적발돼 신천지로부터 제명됐다. 신 씨의 설교는 현재도 인터넷 동영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신 씨는 신천지에 대해 채무 3000만

원(현재 6000만원 가까이 됨)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지 않고 있다. 세미나, 강제개종교육시 받은 돈도 타인 명의로 수수하고 있다.

이처럼 뚜렷한 신앙관도 없이 강제개종교육을 부추겨 돈을 벌어들이는 진용식 목사와 신현욱 씨를 신천지를 평가하는 주요 전문가로 출연시키는 CBS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신천지 관계자는 “신천지 교회의 성장이 기성교단의 교인 감소를 불러오고 있으며, 이는 기성교단의 후원으로 유지되는 CBS의 수익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공정성, 객관성 있는 방송보다는 편파적 연출이나 비상식적인 출연자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신천지를 비방해 신천지의 교세를 축소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는 매년 말씀대성회 등을 통해 성경을 두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의도적인 왜곡보도에 귀 기울이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어디가 옳바른 신앙을 하는 곳인지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진 죽변에서 봄을 맛으세요!

“확실한 멋과 맛이 살아 있는 죽변으로 오세요”

죽변 주민 일동

노후원전 재가동 안전성 공방

[강민경 기자] 2월 27일 새벽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강행 표결처리한 것과 관련, 아직까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시민 사회 단체들이 수명연장 취소와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애당에서도 국회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해명과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재운전에 들어갈 경우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진다는 부분과 지금까지 원전의 크고 작은 사고가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수원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월성1호기는 오는 4월 29일까지 약 45일 동안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검사를 받고 정비를 수행해 재가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10~20여종의 방사성핵종 꾸준히 방출

환경운동연합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발암성물질이 방출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한국수자력원자력(주)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등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10년간 '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방사선조사 보

환경운동연합, 10~20여종의 방사성핵종 꾸준히 방출
한수원, "주변주민들에게 미친 영향 거의 없다"



고서 연보'를 확인해 각 핵발전소에서 방사성 요오드, 세슘, 스트론튬 등 10~20여종의 방사성핵종이 꾸준히 방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측은 "고리·한빛·월성·한울 등 4개 원전부지에서 지난 10년간(2008년 제외) 갑상선암의 주요 발병원인으로 지목되는 방사성 요오드가 55억 베크렐(Bq) 방출됐다"면서 "방사성 세슘과 스트론튬은 같

은 기간에 7억 6천만베크렐(Bq)이 방출돼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에서 일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요오드 131~133은 고리와 한빛, 한울 원전에서 가장 많이 방출됐으며, 고리원전의 경우 2003년에 최대 2억 1800만 베크렐(Bq), 2007년에 1억 8000만 베크렐(Bq)이 방출됐다. 한빛원전에서

는 2007년에 2억 2천 100만베크렐(Bq)이 방출됐다.

또 한울원전에서는 2002년 요오드가 41억 6천만베크렐이 방출됐으며 당시 한울원전에서는 4호기에서 증기발생기 세관파단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방사능 세기는 약하지만 물의 구성 성분으로 흡수되어 광범위한 인체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삼중수소는 월성원전에서 다른 원전보다 10배 가량

경쟁력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한국우정**

우편번호가 2015년 8월 1일부터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뀝니다. (예시) 100-100 ➤ 04535

KOREA POST

많이 방출되고 있다는 것.

이율러 2013년은 삼중수소 제거기와 월성1호기 가동중단으로 인해 삼중수소 방출량이 줄어들었지만 총량은 다른 지역보다 4배 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원전 방출 방사성 핵종이 확인돼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원전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단초가 됐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을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부여하고 암발생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주변주민들에게 미친 영향 거의 없다”

이에 한수원측은 “환경운동연합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며 한수원이 마치 그동안 방사능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처럼 언급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한수원은 환경운동연합이 언급한 ‘원자력 발전소 주변 환경 방사선조사보고서’를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함은 물론, 인쇄본 보고서를 제작해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민간환경감시기구 등에 매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은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원전 소재 지역대학에 맡겨 환경영향평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지역주민에게 주민설명회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우리나라 원전의 환경방사능은 일반인의 연간선량한도인 1밀리시버트(mSv)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며, 자연방사능 수준과 비교해도 차이가 나지 않아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했다.



발암성 물질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등은 원전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검출되는 핵종으로서 원전의 영향이 아닌 과거 핵실험에 의한 영향 탓이라고 해명했다.

월성1~4호기 원전은 삼중수소제거 설비(TRF)를 2007년 7월부터 운영해 현재 설비 가동전과 비교, 배출량이 약 57%정도 감소했으며, 2002년도에 한울원전에서 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에 따른 요오드-131로 인하여 주변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은 약 0.0041mSv로 연간 선량한도 1mSv의 약 0.4%에 해당하며,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이견을 보였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원전 주변 지역의 토양, 지하수 등과 수산물 등에서 검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출처가 확인되고 수치를 떠나 다른 지역보다 원전 인근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 한수원이 인정한 결과”라며 “원자력측이 투명하게 이끌어 왔다면 원전 가동 시부터 방출된 방사성 핵종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전 주변 주민들은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강하지만 명확한 근거가 양측 모두 부족한 상황이며 노후 원전 재가동을 두고 논란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

노후원전인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를 국회에서 검증하자며 ‘월성1호기·고리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이하 ‘탈핵위’)는 3월 2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은 국민의 안전 문제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노후원전에 대한 안전성·경제성·수용성 그리고 환경성

과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까지 총체적으로 검증하고 국민적 합의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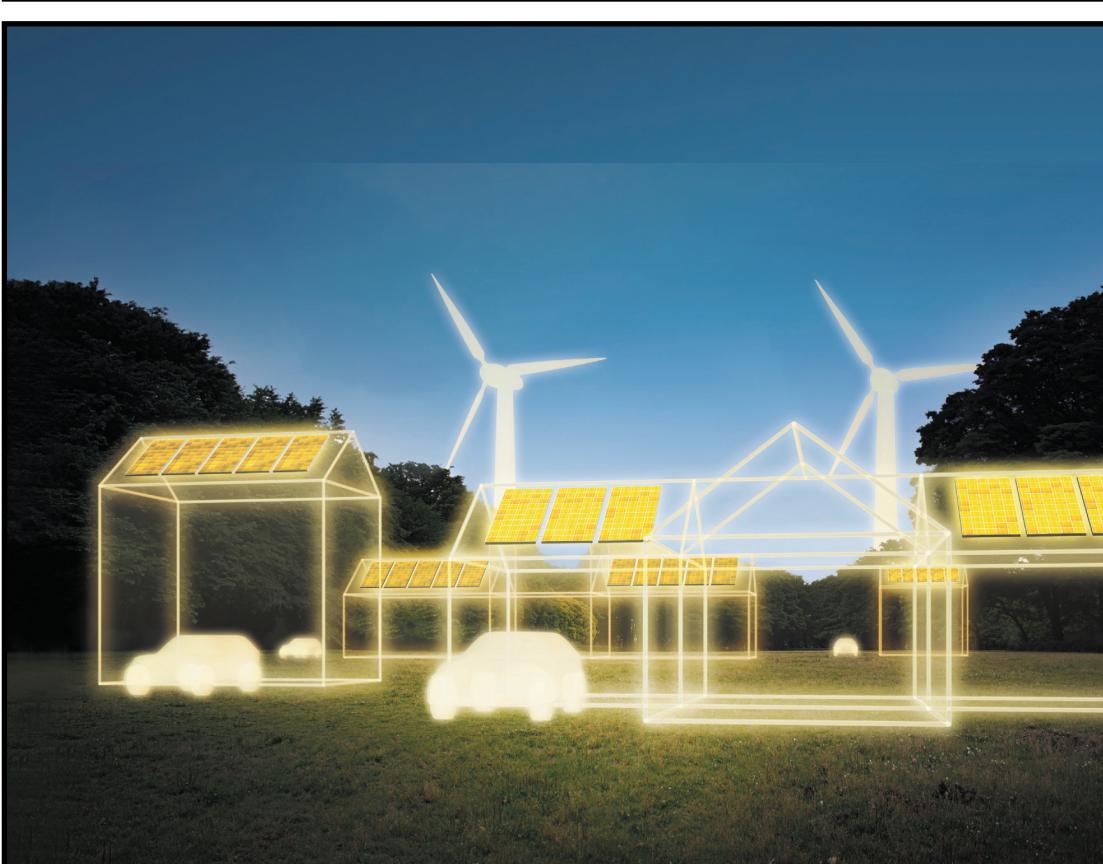
정의당 관계자는 “국회가 법률개정으로 요구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 원안위는 월성1호기에 대해 주민의견수렴은 위원회 소관이 아니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같은 원안위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원전의 안전을 더 이상 맡겨서는 안되며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19일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5개의 지자체(경주, 기장, 울주, 울진, 영광)의 공무원노조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출속 표결처리를 규탄한다”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문제로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고 결정되어야 함에도 소수 의견만으로 수명연장을 결정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스스로 안전규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한 오명을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 제 103조에 규정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과 동일한 원자로형인 월성 2·3·4호기에 적용된 안전설계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수명연장은 제고돼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원전소재공무원노동단체 협의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앙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최우선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승인 취소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 규명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수용 등을 촉구했다.



3년의 혁신
30년의 창조

미래를 위한 창조에너지, KEPCO의 신성장동력이 만듭니다!

대한민국 작은 마을이 에너지 동력원이 되어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에너지로 소통하고 기술간 융·복합을 통해 미래를 준비합니다. 녹색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한국전력의 신성장동력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과 함께
지구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창조에너지자를 만듭니다

시장으로, 세계로, 미래로-

한국전력공사

2015년 제7차 세계 물 포럼 World Water Forum

[김영호 기자] 지구촌 최대 규모 물 관련 행사로 '물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제7차 세계 물 포럼' 개막이 보름 정도 남겨 두고 있다. '제7차 세계 물 포럼'은 다음달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대구 엑스코(EXCO)와 경북 경주 하이코(HICO) 일원에서 개최된다. 2015 세계 물 포럼은 지구촌 물 문제 해결을 위해 1997년부터 3년마다 '세계 물의 날'을 전후하여 개최되는 물 분야 최대 국제행사이다. 이번 포럼에는 각국 정상과 장·차관급 인사, 국제기구·학계·기업인·비정부기구(NGO)·시민 등 170여개국 연인원 3만 5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제7차 세계 물 포럼'은 '실행(Implementation)'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주제별 과정 ▲정치적 과정 ▲과학기술 과정 ▲지역별 과정 등 4개 분야 주요 과정과 시민 포럼 등을 포함해 400여개의 세션을 운영한다. 이는 세계 물 포럼 중 역대 최대다.



▲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국제회의 도시 경주에 새로운 신라천년의 랜드마크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 3월 1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15 대구·경북 세계 물 포럼' 성공을 위한 대학생 물길 원정대·자원봉사자 발대식에서 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지난 2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2015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물은 생존의 유품 조건

물은 모든 생명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 최상의 우위에 있다. 우주의 저술한 행성 중에 현재까지 물이 발견된 곳은 없다. 우주과학의 한계 안에서 오로지 지구에만 존재하는 물이다. 지구의 물과 우리 인체의 물은 신기하게도 70%, 그 비율이 같다. 이는 지구가 살아있어 우리가 살아있다는 쉬운 결론이다.

우리가 식수로 마시는 물은 지구의 혈관에 흐르는 피와 같다. 물은 결코 무한한 것이 아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체가 영원히 살지 않듯이 지구도 나날이 그 생명력을 소진하고 있다. 지구 대기권의 수증기가 바로 내리고, 다시 땅 속으로 스며지만, 이 되풀이에서 온전한 양이 교환되지 않는다. 생물

의 생존법칙은 자연스레 물의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우리 인간을 포함한 동물이 먹고 배설하고, 입고 버리는 옷, 쓰고 버리는 물품, 이 모든 순환은 자연에서의 악의 고리다. 자연을 해치는 모든 변화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으로 지구의 멸망을 자초한다.

어딜 가나 아주 흔한 것이 물이다. '나를 물로 보느냐'는 물 멘 소리의 의미가 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는 매일 물을 소비하면서도 그저 맴껏 쓰고 막힐없이 버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안다. 이 물이 인류의 역사를, 곧 지구의 역사를 흔들 위기에 처했다. 벌써 지구의 변화가 수상하다. 30여 년 전부터 세계의 기후관계 석학들이 다급한 물 부족을 우려했다. 미국 정보국의 발표에 의하면 2017년이면 우리나라 '물부족국가'에 속한다. 바로 코앞에 우리의 물 걱정이 다가왔다. 우리 국민성 중에는 '안빈낙도'에 대한 우월감이 있다.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시시콜콜 따지는 것은 금물이다. 미리 계산하고 측량하기보다 현재의 삶에 안주하고 만다. 후회는 늘 늦게 오는 법이다.

올해는 통곡의 가뭄으로 황사가 유난히 일찍 몰려와서 기승을 부린다. 황사란 단순한 흙모래 바람이 아니다. 온갖 유해요소의 입자들로 범벅된 위험한 물질이다. 옛날에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다. 황사의 직접적 피해보다 더 무

서운 것은 축적된 유해물질로 인한 미래의 질병이다. 물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지구환경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다. 오존층이 무너져 기온이 상승하고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기 시작했다.

기온변화의 가장 큰 주범은 인간과 인간이 섭취하는 동물이다. 너도, 나도, 전 세계인 모두가 이 잘못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많이 누리고 산 국가일수록 책임이 더 크다. 그러나 한편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보다 일찍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와 유해물질 방출에 유의했다. 이 시점에서 대구와 경주에서 열리는 '세계 물 포럼'은 아주 중요한 계기다. 지구 상 가장 중요한 물질인 물에 관한 연구와 검토로 우리 국민들이 '물'에 관한 '물' 같은 생각을 바꾸게 되길 희망한다.

그저 도쳐에, 어딜 가나 손가락 터치만으로 얻을 수 있는 흔한 물의 미래를 우리는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폐허에서 오늘을 이룩하여 이제 막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은 아직 성성하다. 물의 중요성 가운데 특히 유념할 것은 물의 질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지하수는 대다수 오염으로 식용이 불가한지 오래다. 기계의 힘을 빌려 정수처리를 한 물의 질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순 없다. 더 많은 기계와 약품이 필요하다는

것은 더 많은 다른 물질을 소비해야만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가장 당연시하며 사용하는 물과 전기의 역학관계에서 물이 우선이다. 찬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 세운 원자력 발전소도 물이 없으면 쳐치 곤란한 쓰레기에 불과하다. 지금 온 국민은 대구와 경주에서 개최되는 '세계 물 포럼'을 계기로 새로운 물의 개념을 깨달아야 할 때다. 김희동 기자

제7차 '세계 물 포럼' 행사 사전 분위기 조성과 성공 다짐의 기회

지난 20일 동궁과 월지, 재매정, 나정, 포석정, 알천 등 물 관련 역사 유적이 깊은 국제회의 중심도시 경주에서 '2015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물과 지속 가능한 발전' 이란 주제로 물의 소중함을 알려 제7차 '세계 물 포럼' 행사 사전 분위기 조성과 성공 다짐의 기회가 됐다.

이번 행사는 국내에서 1995년부터 기념행사를 실시한 이래 20주년이 되는 행사로 '이완구' 국무총리, '윤성규' 환경부장관, '김경식' 국토부 제1차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최양식' 경주시장을 비롯한 물 관련 전문업체, 학계, 시민단체 등 2,3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물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물은 인류 생존을 위해 필수 요소로 누구나 안전한 식수 접근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효율적 물 관리와 친환경 개발이 필요함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을 통해 오는 4월 12일부터 대구·경북(경주)에서 열리는 '제7차 세계 물 포럼' 행사 홍보 및 사전 분위기 조성과 성공 다짐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지금까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열리던 행사가 물의 도시 경주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세계 물의 날'은 1992년 제47차 유엔총회에서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의 권고를 받아들여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인류의 생존을 위한 물 문제 해결에 전세계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선포하고 기념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등 기상이변이 빈발하고 피해가 입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세계 물의 날'과 '세계 물 포럼' 행사의 의미가 매우 커다며 앞으로 물의 소중함과 절약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하고 우리나라 물 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드림저널

등록번호 : 울산 다 01103
www.newsdrream.net

대표전화: 0505-871-0012

편집·발행인: 金永浩
편집국장 직대: 朴號煥 / 인쇄처: (주)대동프린텍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4길 21-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개최도시인 대구와 경북

Colorful Daegu =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 항일저항운동의 거점, 근대적 교육을 통한 실력양성운동

대구는 금호강과 그 지류인 신천으로 둘러싸인 기름진 들판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살기좋은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경상감영 소재지로서 영남지방의 중추기능을 수행해 왔고, 일제의 침입이 시작되면서는 항일저항운동의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근대적 교육을 통한 실력양성운동, 2·28 학생의 거 등을 전개 한 역사적인 도시이다.

1981년 직할시로, 1995년 1월에는 지방자치의 완성년도로 대구광역시로 개칭해 지방화시대의 원년을 맞이했다. 그 해 3월에는 달성군을 편입해 '7개구 1개군'으로 행정구역이 광역화 되어 영남권 중주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대구는 최고 수준의 상하수 설비 및 운영 노하우를 갖고 99.9%의 완벽에 가까운 급수보급률과, 표준공정처리 외에도 전·후 오존처리과정

을 거쳐 선진국 수준의 맑은 물을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2000년 수돗물 분야 전국최초 ISO인증 획득, 2013년에는 전국최초 우수한 친환경 기술력으로 산업단지 폐수를 고도처리해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등 물 재이용분야도 확대 중에 있다. 또한 21세기 블루골드로 급부상중인 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도심 속 버려진 하천을 친환경적 수변공간으로 만드는 생태복원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 2015년 세계물포럼은 우수한 기술을 세계와 공유해 대구를 명실상부한 국제적 물 산업 선도도시로 우뚝 서게 할 계기가 될 것이다.

Pride Gyeong Buk = 민족문화의 정신적 텃밭
신라 천년의 찬란한 불교문화의 본산지

경상북도는 신라 천년의 찬란한 불교문화와 선비정신의 유교문화 등 민족 문화의 본산지이자 새마을운동과 자연보호운동 등 국민정신운동의



발상지다. 면적은 19,028km² (남한 국토의 19.1%)로 서울의 31배에 달하고, 행정구역은 신라 천년의 고도(古都) 경주시를 비롯한 10개 시와 13개 군으로, 대구광역시를 둘러싸고 있는 한반도 동남부의 광역자치도이다.

경주 역사유적지구와 불국사석굴암, 양동마을과 안동 하회마을 등 UNESCO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한 문화자원은 전국 문화재의 20%다. 남한 최대의 강인 낙동은 유로 연장 510km, 335km 긴 해안선과 청정바다

동해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수려한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져 있다. 세계적인 철강 산업과 섬유산업의 중심지로서 한국의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수도권 다음으로 38개의 많은 대학이 소개해 풍부한 연구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수처리 핵심 부품인 멤브레인 제조업체 등 물 기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물 산업도시로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김희동 기자

〈환영인사〉



▲ 이정무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위원장

"세계 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2015년 대한민국 대구 경북에서 물 분야 세계 최대 행사인 세계물포럼을 개최합니다. 세계물포럼은 1997년 이후 매 3년마다 전 세계 민관 산학이 공동으로 펼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가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역



▲ 이순탁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국제운영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상 중요한 전환점"

2015년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이 "Water for Our Future"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대구·경북에서 열립니다. UN이 지난 2000년 설정한 새천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마무리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제시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은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역사상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MDGs 이후 포스트 2015년

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7차 세계물포럼은 과거의 성과를 계승하고 미래를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 Benedito Braga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국제운영위원회 공동위원장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지속 가능한 환경적 측면에서 모두가 인식을 함께하는 계기"

다가올 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물과 관련한 도전을 기회로 바꾸려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만 있다면, 다른 영역에서의 안정 또

한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위생적인 물은 그 자체가 목표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며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질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식량과 에너지 공급,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며 환경 보호를 위해 물을 보다 현명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지난 세계 물포럼에서 제시되었던 수많은 물 문제 해법들은 이제 실행에 옮겨져야 하며, 여기에는 효과적인 관리·구축과 함께, 충분한 역량과 적절한 재정적 지원 등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은 당면한 물 문제 인류 공동의 책임으로, 그 해결이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지속 가능한 환경적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데 모두가 인식을 함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한 물 문제 해결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사)죽변발전협의회 비대위의 앞날은?

[김영호 기자] 경북 울진군 (사)죽변발전협의회 회장과 사무국장이 모두 주민복지센터(해심원 온천) 건립과정에서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등 혐난한 과정속에서 9명의 비상대책위원들이 선출됐다. 27일 총회에서 현 감사 및 이사 7명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으나 아직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사들이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관에 맞지 않은 법인 운영

(사)죽변발전협의회는 비영리로 운영되다가, 회장 윤영복씨를 주축으로 한울원자력 주변 주민지원금과 울진군 보조금 등 사업비 133억 원이 투입된 죽변면 주민복지센터를 건축하면서 사단법인으로 법인체를 구성했다.

법인을 만들려면 법인자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칙인 '정관'을 바탕으로 광역지자체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따라서 정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경북도의 조사 결과, 한번도 결산보고 등이 없었으며, 거짓 회의록도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총회를 거쳐 도의 승인을 득해야 하지만 일부 조항을 자체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사)죽변발전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정관 변경 등을 신청한 적이 없어 모든 자의적 수정은 무효이며 정관 상 감사내용을 년 2회 실시해 보고해야 하지만 이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관 제41조에 '임원이 임기중 결위 시 2개월 내 총회에서 후임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27일 총회에서 새 이사장 추천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27명의 비대위 이사진과 잘못된 정관 수정 이뤄낼지 주목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대책위 27명 행보 주목

27일 해심원 회의실에서 16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처음부터 회의 진행을 할 임시 의장직을 놓고 고성이 오갔다. 결국 전영우 발전협의회 후정 1리 이장이 맡았다.

현 발전협의회 이사장인 윤영복씨는 금보석 풀려나 총회에 참석, 이사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고 일부 이사들도 사퇴를 결정했다. 이날 결국 뒤늦게 현 임원 전원(총 7명) 해임안이 상정돼 가결됐다. 하지만 이에 승복하지 못해 자리를 떠난 이사들도 있어 향후 대처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죽변발전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됐다. 당연직으로 김창우 군의원, 김영철 죽변면장, 15명의 이장과 일반인으로 임원식, 최창우, 도경자, 서순조, 박영도, 하정

만, 김영숙, 박호환, 이명조 등 9명이 선출됐다. 또 비상대책위의 간사로 전석재 전 협의회 감사가 내정돼 총 27명의 비대위가 구성됐다. 비대위는 1개월 내 의견수렴을 거쳐 신임감사와 이사를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15년 업무보고와 2014년 결산보고, 감사보고, 3명의 이사를 선임하는 건과 협의회 활성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유인물로 대체하면서 133억여원의 비용으로 건립된 해심원 온천의 부실공사에 대한 현 이사진의 책임을 묻는 성격이 짙었다.

특히 회장과 사무국장이 모두 주민복지센터(해심원 온천) 건립과정에서 비위로 구속된 상황이어서 총회에서 아직 2013년도부터의 결산 보고서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2013년도 사업추진비 등 각종 회의록 등 서류를 보고하라고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일부 지역 주민은 133여억 원을

들여 건립한 해심원 온천이 자칫 흉물로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번 총회에서 다시 발전협의회가 그 목적에 맞게 주민들의 복지기구로 도약할 계기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비대위와 현 이사간의 갈등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비대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죽변발전협의회 윤영복 이사장 등은 비위에 연루되면서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징역4년 5천690만원의 추징금, 사무국장 B씨에게 징역3년 450만원 추징금을 최근 각각 겸찰로부터 구형받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정관의 유권해석이 쟁점으로 부각했다. 정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통해 협의회를 정상화 시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비대위가 이사진들과 갈등속에서 잘못된 정관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월송정에서 동해안을 보다!

[김영호 기자] 임광원 경북 울진군수가 "행복한 울진군 건설"을 위해 올 초부터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직접 챙겨 울진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적극 펼치고 있는 가운데 3월 23일 울진문화원을 찾아 간담회를 통해 울진지역 문화정책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대웅 문화원장, 문화원 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해 월송정 내 자연경관 조망권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월송정(越松亭)은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월송정로 517(월송리)에 위치한 정자로 관동팔경의 하나로 손꼽혔다. 울진군지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시대의 네 화랑인 영랑, 술랑, 남석, 안상의 유람지였다. '달밤에 솔밭에서 놀았다'고 해 '월송정(月松亭)'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월국(越國)에서 소나무 묘목을 가져다 심었다' 해 '월송(越松)'이라고도 했다. 월송정은 고려시대 처음 만들어졌다. 하지만 소실됐다가 1980년 26평 규모의 옛 모습으로 복원됐으며 그 현판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규하 전 대통령의 친필이다.

월송정은 옛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조선 성종이 명화가를 시켜 '팔도의 사정(사정-활을 쏘는 활터의 정자) 중 가장 풍경이 좋은 곳을 그려오라' 명하자 그 화공이 영흥(永興)의 용흥각(龍興閣)과 평해의 월송정을 그려 올렸다고 한다. 이를 본 성종은 "홍각의 부용(芙蓉-연꽃)과 양류(楊柳-버들)가 아름답기는 하나 월송정에 비할 수 없다"며 월송정과 그 주변의 경치에 감탄했다 한다.

신라시대 화랑들이 이곳의 푸른 소나무와 흰 모래밭에서 응지(雄志)

관동8경 중 한 곳... 송림과 동해를 바라보면 내가 신선



를 품던 도장으로도 알려지고 있는 월송정은 속종때 송강(松江) 정철(鄭澈)이 이곳을 찬미한 관동팔경 중의 하나로 정자위에서 바라보는 빽빽히 우거진 노송림과 명사십리(明沙十里)의 아름다운 바다풍경은 가히 손

꼽을 만한 명승지(名勝地)이다.

주변의 곰솔과 어울려 뜻밖의 풍광을 보여 주는 곳이 월송정이다. 곰솔의 적갈색 몸채는 거북등처럼 넓게 갈라져 있고, 휘늘어진 솔잎의 끝 마디에는 투명한 이슬 빛이 맴돈다.

그 이슬 빛이 밟는 솔 향에 취한 채 정자에 올라 송림과 동해를 바라보면 유하주를 마시며 달과 대화를 나누었던 정철이 결코 부럽지 않다.



입구에서부터 불어오는 울진의 옛 향기와 동해의 바다내음

입구에서부터 바닷가까지 멀지 않다. 그래서 바람부는 날이면 소금내음과 함께 산책을 하며 월송정을 관광할 수 있다. 작은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으며 주차장에서 월송정까지는 약 150m 정도이며 정자에서 바다까지는 걸어서 5분정도의 거리이고 정자에서도 동해바다를 바라 볼 수 있다.



입구쪽의 기와담장과 아담한 길



소나무 숲을 산책하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이다.

인권유린 '강제개종교육' 사회적 파장 확산

강제개종교육의 실제 드러난 '강릉엄마납치사건' 재조명

[김지은 기자] 최근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단골손님으로 자리 잡은 '강제개종교육'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강제개종교육이란 한 종교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다른 종교로 바꾸는 '개종'을 위한 교육이 강제적, 강압적으로 자행됨으로 비롯된 말이다. 지난 1월 달에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제개종교육 사건이 있었다. '강릉엄마납치'라는 검색어가 포털 사이트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강제개종교육의 실체가 드러났으며, 이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벌어지는 납치·감금·폭행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또한 높아졌다.

'엄마가 납치됐어요'

지난 1월 23일 밤 10시께 강원도 동해시에서 남편이 아내 A(45)씨를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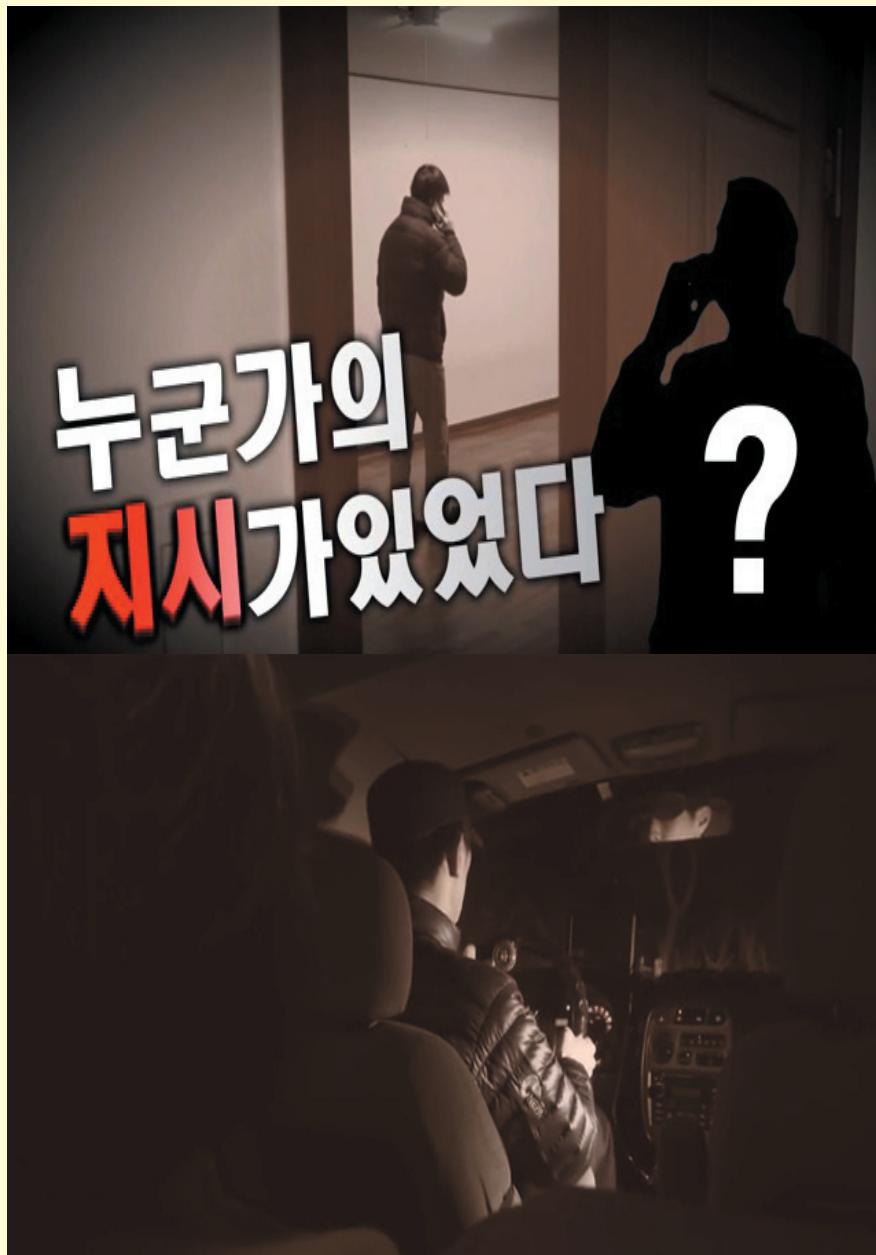
평소 부모사이가 안 좋은 모습을 자주 접했던 A씨의 딸 B양(13)은 엄마가 아빠의 연락을 받고 집을 나선 뒤 갑자기 찾아온 이종사촌들에 의해 동생(10)과 함께 원주로 이동하게 됐다. 이 상황을 수상하게 여긴 B양은 엄마의 지인에게 '납치당하는 것 같다'며 도움을 청했다.

아이들은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인계된 뒤 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에서 지내야 했다. 연락이 두절된 엄마의 안위를 확인하지 못한 A양은 "아빠가 엄마를 납치·감금한 것 같다"며 112에 한 번 더 신고했다.

경찰은 단순 가정사로 치부하고 5시간여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부실한 초동수사로 각종 포털사이트를 떠들썩하게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단순 가정사가 아닌 심각한 부녀자 납치·감금 사건임을 파악한 뒤 A씨를 찾기 위한 수사에 총력을 다 했다.

인권 무참히 짓밟는 '강제개종교육'

아이들이 엄마의 납치 상황을 인지하고 엄마를 찾기 위해 직접 경찰



에 신고하는 등 다급해 하는 동안 A씨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밖에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다는 남편의 전화를 받은 A씨는 의심 없이 휴대폰과 지갑만 들고 집 밖을 나섰다. 평소와 달리 A씨의 뒤를 따라 조용히 걸어오던 남편은 갑자기 돌변했다.

A씨 앞에 갑자기 멈춰선 검정색 승용차 한 대와 차에서 내린 A씨의 언니와 오빠, 뒤따르던 남편. A씨는 길가에 있던 현수막 끝자락을 불잡고 발버둥 쳤지만 끝내 강제로 승합차에 태워졌고, 양발은 정 테이프로 감겨진 채 양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다.

인권유린을 일삼는 '강제개종교육'의 단골 수법이다. A씨는 다음날 새벽 3시경 집에서 400km나 떨어진 충남 태안의 한 펜션까지 강제 납치·감금됐다. A씨는 "펜션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며칠 간 생활 할 수 있는 식량과 옷가지가 준비돼 있음

을 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펜션에 감금돼 있는 동안에도 A씨의 팔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가족들은 A씨에게 "종교를 개종하라"며 개종교육에 임할 것을 계속 강요했다. A씨는 가족들에 의해 이런 일을 당한 것이 "비참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납치 사흘만인 1월 25일 46여 명의 인력을 동원한 경찰이 긴급 투입돼 통신수사, 위치추적, 차량 행적 등의 수사를 벌인 끝에 발견됐다. 남편은 경찰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A씨 손목의 수갑을 풀어주기에는커녕 A씨를 이불로 덮어 씨워 숨기려 해 결국 남편이 씨는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가족들 앞세워 지시하는 공모자

A씨는 가족들이 자신을 납치·감금한 과정을 보면 남편과 가족들 뒤

에서 분명 누군가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2월 5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남편과 모의해 납치·감금한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공동감금)로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공모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가 숨은 공모자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대는 납치 당시 차량운전을 하던 신원불명의 남성에게 '살려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무시당한 점을 들어 설명했다. 가족들을 돋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납치 현장을 방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A씨는 고소장을 통해 "배후에서 누군가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남편은 묻는 말에 대답하기 어려우면 뒤를 돌아 문자를 보내고 답장이 오면 다시 대화를 이어갔고, 수차례 비밀스럽게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수상한 모습을 계속 보였다"고 공모자의 존재에 대해 확신했다. 또 A씨는 탄원서를 통해 "사건 현장에서 사건 계획서, 노트북을 비롯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휴대폰 등 증거물이 경찰에 압수됐지만 경찰은 남편과 공모한 제3의 인물을 찾아 달라는 요청을 귀담아 듣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적 자유가 있고 인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납치·감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후 인물을 찾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처럼 개종교육을 담당하는 목사들은 가족이 이단에 빠졌다고 할 때 급박한 심정과 피해자가 가족들을 고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가족들을 앞세워 납치·감금 등 극단적인 불법 행위들을 일삼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행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가정사라고 치부하는 것은 분명한 인권 침해이며, 인권유린을 일삼는 강제개종 교육은 절대 자행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강원산채·약초산업 진흥 시킨다

최문순 지사, “산림소득산업 진흥의 원년의 해로 정하고 2020년까지 1,618억원 투자”

[김지은 기자]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산채 및 약초 진흥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소득 2배·청렴 2배’ 다짐결의 및 실무자 연찬회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산림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연계하고 도민이 행복한 강원도를 청조하기 위해 산림소득산업 진흥의 원년의 해로 정하고 ‘강원산채·약초산업 진흥계획’ 마련, 2020년까지 1,618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추진전략	재원별	합계	재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용자	자부담
합계	161,828 (100%)	61,538 (38%)	11,650 (7%)	25,351 (16%)	10,205 (6%)	53,083 (33%)	
○ 지속 가능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103,731	35,217	7,572	17,665	7,765	35,511	
○ 고부가 가치 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촉진 강화	46,407	19,321	2,908	6,566	2,440	15,172	
○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 시장 개척	8,000	4,000	480	1,120		2,400	
○ 연구개발 및 산업화	3,690	3,000	690				



이번 ‘강원산채·약초산업 진흥계획(2015~2020)’은 도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청정 산림을 이용해 산채·약초류를 산업화하여, 도민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임가소득 2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4대 추진전략 16개 중점과제를 실천해 ‘소득과 행복이 샘솟는 산림복지 유품 道’ 달성을 제시했다.

4대 추진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에 1,037억원 ▲‘고부가 가치 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촉진 강화’에 464억원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 시장 개척’에 80억원 ▲‘연구개발 및 산업화’ 추진에 3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도는 먼저 올해 도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에 총사업비 127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산림작물 재배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에 66억원,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 등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에 1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백두대간주민 소득지원 사업에는 20억원, 산림경영지도 사업에 14억원, 산림조합 특화사업 10억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에 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진흥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 및 시군의 산림소득분야 실무 공무원이 3월 26부터 27일까지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수련원에 모여 계획의 추진과 소득 2배·청렴 2배를 위한 다짐결의를 실시하는 등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관계자 40명이 참석해 업무처리요령 교육, 규제개선토의, 현장학습, 청렴다짐결의를 다졌다.

도 관계자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해 돈 버는 산림소득정책으로 도민들이 풍요로워지는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세부적으로 강원도는 82% 산지 효율적 이용해 소득 2배 행복 2배 실현한다는 취지로

강원

청정임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 난관

하지만 문제점도 있어 이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다. 경영구조에서는 임산물 생산 임업경영 형태가 취약하다.(1인당 소유면적 1.5ha로 부업 형태) 생산분야에서는 대량 생산기반이 취약해 가격경쟁력 떨어져 사후관리비용이 증가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 유통분야에서는 외국산 임산물을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청정임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이 확산되고 이는 곧

수출 경쟁력에서 밀려나는 부분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단기 소득 임산물 육성 및 산업화의 연구개발이나 투자가 부족한 것도 부정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최문순 지사는 투자계획을 확실히 정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면 앞으로 이 분야의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과 함께 치밀한 준비를 단계별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과제별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소비촉진

이를 위해 대단위 생산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의 현대화·규모화(생산기반 204ha, 309억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특화작물 육성 및 주산단지를 조

성해 추진(주산단지 현 35개소→51개소)하며 지역특성을 강조한 자연체험, 전통체험과 연계해 6차 산업화(16개소 96억원)를 이루고 목재생산과 병행한 산채·약초류 생산을 위한 복합경영단지를 조성(52개소 225억원)한다. 이어 맞춤형 산림소득 지원사업 확대(소규모 보호·감시·건조·저장·가공시설 등 407억원)하고 국·공유림의 소득원도 활용을 확대(사용면적 확대 5ha→30ha, 보호협약마을을 산채무상공급)한다. 또 우량 종자·종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채종원(산양삼 채종원 30억원, 품종보호7건→10건)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고부가 가치 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촉진 강화(464억원)를 위해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전문 유통조직의 육성·확대(임산물 종합 유통단지 8개소 85억원)를 꾀하고 있으며 산림조합의 산지 수집·유통사업 역할을 강화(조합 특화사업 6개소 60억원)한다. 이 밖에도 ▲명품 브랜드화를 위한 지리적 표시 등록 품목 발굴 및 지원 확대(10개소 15억원) ▲고부가 가치를 위한 가공 산업 활성화(가공 단지 5개소 100억원, 소규모 시설 202억원) ▲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및 홍보 강화(식품·푸드박람회 참가·홍보 2억원) ▲우수 임산물 관리제도(GAP)를 통해 안전성 제고 및 수입산과의 차별화(이력 관리 추진) ▲2018 동계 올림픽 식자재 공급(산지: 자재 공급 → 식품 연구소: 식품 개발 → 생산자: 판매)을 계획하고 있다.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 시장 개척(80억원)을 목표로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수출 특화 지역으로 육성(수출 단지 4개소 80억원) ▲한·중 FTA 등 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 체계 강화(청정 식품 및 기능성 식품 개발) ▲수출 시장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국 농수산 유통공사와 지원 정책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 개발 및 산업화(37억원)를 위해 ▲산채·약초류 산업화를 위한 연구 개발 확대 강화(종자원 80㏊ 37억원) ▲고품질 산나물류 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 보급 체계 구축(표준화 배지 침 보급) ▲생산·유통 전문 인력 양성 및 재배 기술의 보급 확대(지도원 현 6→10명) ▲품종 육성에서 산업화 까지 One-step 연구 수행 체계 확립(기술 이전→산업화 촉진) ▲웰빙 주제 등에 따른 다양한 기능성 상품 개발(음료·화장품·비누 등) 실용 연구 강화)을 강구하고 있다.

환경부가 인정한 계곡 트래킹 명소 '울진 왕피천'

저절로 힐링되는 자연생태 청정지역으로 떠나자!



[김영호 기자] 우리나라에는 금수강산이라 어느 한곳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한 경북 울진군에 있는 왕피천을 소개하고자 한다. 왕피천과 그 유역은 생태 환경 자체뿐만 아니라 왕피천 유역은 자연생태가 아주 잘 보존된 곳으로 우리나라에서 왕피천 유역의 일부를 '왕피천 유역 생태 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고 보호할 정도다.

때문에 봄의 향연이 펼쳐지는 4월,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울진 왕피천에 트래킹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왕피천은 경북 영양군 수비면 금장

산(848.7 m) 북서쪽 계곡에서 발원, 울진군 근남면에서 동해로 흘러들어가는 강이다. 강 길이는 61 Km이고, 왕피천 유역 면적은 514 Km²로 알려져 있다.

특히 왕피천 중간지점에 위치한 울진군 근남면 구산3리 굴구지마을은 왕피천 하류의 성류굴에서 아홉 구비 산자락을 돌아가야 나온다고 하여 불여진 이름으로 울진에서도 오지로 꽉힌다. 때문에 회귀 농식물들이 잘 보전되고 있으며 울진군에서도 관리에 소홀할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굴구지마을 초입 구고교 아래 왕피

천은 수심이 얕고 강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맑은 물과 천혜의 비경은 신비감마저 줄 정도다.

한번 온 사람들이 계곡 이곳을 트래킹하면서 입소문으로 힐링의 장소로 꽉히고 있다.

왕피천 계곡 트래킹은 굴구지마을 회관 앞에서 왕피천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용소까지 계곡 트래킹을 즐긴 후 계곡 옆 생태탐방로를 이용해 마을로 돌아오는 코스다.

특히 용소로 가는 길목 상천초소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내려가면 밀림을 연상케 하는 울창한 숲길이 펼쳐지며 이 길을 지나는 동안에는 상쾌한

공기와 함께 온갖 야생초들이 눈을 즐겁게 해준다.

숲길이 끝나는 지점의 큰 바위를 지나 계곡물을 헤치며 걷다 보면 깊이가 듯한 협곡 절벽 사이에서 절경을 품은 용소를 만날 수 있다.

하류 2.2km 구간인 왕피천 은어길은 짧게 계곡 트레킹을 즐기기 좋은 코스이며 구산2리 성산지에서 출발해 까치소, 터널수로, 전망대, 구산3리 물병골까지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이곳은 강을 끼고 이어진 수로를 따라 난간과 페크로 만들어진 계단이 설치돼 있으며 길 바로 옆으로 강물이 흘러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며 걸을 수 있다.

왕피천 부근은 풍광이 뛰어나고 유서 깊은 곳도 많다.

광천이 흐르는 계곡은 우리나라 자연명승 제 6호인 불영계곡으로 잘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왕피천 계곡은 2013년 12월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환경적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전국 '12곳의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됐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굴구지산촌펜션은 산자락에 자리해 깨끗하고 넓은 객실과 왕피천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권을 갖추고 있어 가족들 단위 휴양지로 손색이 없다.

한편 굴구지마을에서는 매년 7월 왕피천페미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 퍼래미낚시, 논썰매타기, 감자떡 만들기 등 다양한 산촌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광주서구을 재보선 대접전... 전국적 관심 집중

새누리당 정승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 무소속 천정배 후보, 정의당 강은미 후보

[박주리 기자] 4·29 재보선 광주서구에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무소속으로 출마함으로 인해 야권 내 경쟁 구도가 구축되면서 더욱 치열한 양상을 펼치고 있다.

광주서구을 보선은 새누리당 정승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 무소속 천정배 후보, 정의당 강은미 후보 등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차관과 식약처장의 경력을 지닌 새누리당 정승 후보는 지난 25일 KBS 라디오를 통해 “저를 키워준 광주 발전을 위해서 불독처럼 일해 우리 광주 시민들을 정승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출마했습니다”며 “지금 광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기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제일 큰 문제인 청년들 취업을 위해 앞장서서 취업 세일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도 같은 날 인터뷰에서 “정권교체 그리고 호남 차별 시정을 바라는 민심을 받들어서 본선 승리를 하겠다. 겸증된 전문성, 정책 능력을 바탕으로 당 개혁을 주도하고 수권정당, 강한 야당을 만드는 데도 역할을 하겠고, 인사차별, 예산이나 국책사업의 소외를 막아내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보기 때문에 새민연이 서민 경제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는 선거라고 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며 “부자감세 철회, 서민증세 시정 등을 포함해서 경제민주화, 소위 하청업체, 자영업체, 또 소규모영세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 그리고 최저임금제의 대폭적인 인상, 그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광주형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고 밝혔다.

무소속 천정배 후보는 지난 25일 광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 김대중 인권평화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천 후보는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신의 혁명이 필요하다. 국립 김대중 인권평화대학원 대학교가 그 답”이라며 “국립 김대중 인권평화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호남정치를 부활시켜야 하며, 차별에 반대하는 호남 시민들의 뜻을 모아 차별을 없애는 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천 후보는 “제가 당선되면 새민연도 각성하고 스스로 쇄신하는 충격을 받을 것이며, 새로운 세력을 키워

다음 대선에서 야권의 힘이 늘어나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선거운동의 핵심은 야권을 재구성하기 위해 광주에서부터 일당 독점 구도를 타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것으로 총선 민심을 가늠해볼 수 있는 만큼 여야 당 대표 모두가 기선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6일 정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광주 방문에서 “30년 만에 광주 시민의 지지를 받아서 정승 후보가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되면 정 후보를 새누리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천정배 후보측 설성현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커다란 장밋빛 보따리를 내보였으나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기 일쑤였다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다. 호남 소외와 차별에 대한 참회나 자기고백 없이 또다시 신기루와 같은 장밋빛 보따리를 들고 와 광주 시민을 혐혹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호남 발전에 무성의한 새누리당과 무기력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왜 광주정치가 새롭게 재편돼야 하는가에 대한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민연 문재인 대표는 지난 22일 광주 방문해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광주의 판세가 다른 지역의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또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20% 안팎인 재보궐 선거는 야당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최근 야권이 분열돼 더욱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우리 당에 대한 호남 민심이 떨어진 것은 선거에서 패배하고 원칙 없는 공천을 한 탓이니 정도를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30일에도 다시 광주를 찾아 ‘광주형 일자리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조영택 후보 당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CBN뉴스는 포탈사이트 Daum, Nate, Zum 등과 제휴를 통하여 전국과 경북, 경주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실시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며 인터넷 방송매체입니다.

향일 독립운동가 집안 경주 최부자집

[김희동 기자] 경주 최부자집 마지막인 12대 최부자 최준(崔浚, 1884년 ~ 1970년) 선생은 27세에 한일합방을 겪어야 했다. 이후 1917년 임금이 계신 북쪽을 향해 정안수를 떠 놓고 곡을 하면서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본 사람 밑에서는 벼슬을 안한다”고 맹세를 하고 수백년간 내려온 가문의 재산을 사실상 포기했다.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일생을 향일 운동에 헌신한 선생의 숭고한 정신과 경주최부자집의 ‘타인을 배려하는 나눔’ 그 실천적 삶을 재 조명해본다.

최준(崔浚) 선생

일제의 치열한 감시 속에서 임정 등 독립운동 단체에 자금을 지원

최준(崔浚, 1884년 ~ 1970년) 선생은 경주(慶州) 최부자 집안의 마지막 최부자로 잘 알려져 있다.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첫 고액 기부자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또 선생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기업인, 사회운동가, 교육인이다.

전 재산을 독립운동과 교육 사업에 투자했고, 일제강점기 때 백산상회 대표로 활동하면서 일제의 치열한 감시 속에서 임정 등 독립운동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대구대학의 설립자이다.

경주 지방의 대지주(大地主)로서 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恢復團)과 대



▲ 1970년대 최부자집 풍경

한광복회(大韓光復會)에 관계하면서 거액의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독립운동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특히 대한광복회 총사령인 박상진(朴尙鎮)과는 사촌 처남의 관계로 자신의 재력을 바탕으로 대한광복회의 재무(財務)를 맡기도 했다. 그리하여 대한광복회가 발각될 때, 이에 연루되어 피체되기도 했던 그는 3·1 운동 이후 상해(上海)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역시 거액의 자금을 송달하였다.

그가 송달한 자금의 액수가 얼마나 큼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

으나 안희제(安熙濟)와 함께 경영하던 백산무역주식회사(白山貿易株式會社)가 1백여만원의 부채를 지고 파산될 만큼 거액이었다고 한다.

1918년 봄 인촌 김성수는 경상북도 경주를 찾아 최부자집의 후손 최준을 방문했다. 김성수가 최준을 찾은 것은 경성방직과 후에 세우게 될 동아일보에 지방의 유력 인사들의 참여를 권유하기 위함이었다. 김성수가 경북 경주를 다녀간 지 1년 후 1919년 10월 경성방직이 설립됐다. 김성수의 제안을 받아들여 경성방직의 창립 발기인의 한 사람이 되었고, 김성수와 안희제 등

과 교류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한다.

한편 그는 1921년 9월 태평양회의 (太平洋會議)에 보내기로 한 청원서에 경주대표로 서명하기도 했다.

1983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통령표창을 추서했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전재산을 처분하여 최부자집이 사라졌다고 알려졌으나 그의 후손들은 현존해 있다.

최완(崔浣) 선생



▲ 최준 선생



▲ 최준 생가

최완(崔浣·1889~1927) 선생은 최준 선생의 둘째 아우로 1909년 안희제 이원식 윤병호 서상일 등 80여 명의 애국지사와 함께 신민회(新民會 계열인) 대동청년당(大東青年黨)을 조직했다. 국권회복에 뜻을 두고 독립운동을 전개했으며 1810년 8월에 일제의 강재 조약에 의해 국권이 상실되자 중국으로 망명했다.

1919년 3.1 운동 후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참가, 그 해 4월 13일에 임시정부 의정원 회의에서 재무부 위원財務部委員으로 선출되었고 조사원과 의정원 위원議政院委員 등을 역임하였다. 그 후 일제의 간계와 음모로 체포, 압송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결국, 오랜 망명생활 끝에 얻은 지병이 악화되어 38세의 젊은 나이에 운명했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적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경주(慶州) 최부자 집안의 나눔과 아름다운 공존

“흉년에 땅을 사지 말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만 석이 넘으면 내놓아라”

몇 해 전 미국 백만장자들이 ‘우리 세금을 올려달라’며 의회를 찾았다. 이들이 “우리가 세금을 더 내려는 것은 자선 차원이 아니다. 장차 우리 부자들에게 닥쳐올 위기를 막으려는 ‘계몽적 이기심’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주 최부자집의 정신과 맞닿아 있으며 최부자집은 오래전부터 삶의 철학으로 실천해 오고 있다.

조선시대 최고의 부자로 불렸던 경주 최부자집은 300년간 만석꾼을 지내면서 어려운 이웃을 돋고 독립운동을 후원해 큰 존경을 받았다. ‘사방 100리 안에 흑(口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가문의 지침과 어려운 사람들이 손을 집어 놓어 잡히는 만큼 쌀을 가져가도록 구멍을 뚫어 놓은 ‘구멍 뒤주’는 최부자집의 ‘노블리스 오블리주(고위층의 사회적 책임)’ 정신을 대표하는 일화다.

‘진사 이상 벼슬은 하지 말라, 만 석



이상의 재산은 세상에 내놓아라,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주위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시집 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경주 최부자집은 집안을 일으킨 9대 조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라에서 병자호란이 끝난 뒤 벼려진 땅을 개간하면 소유권을 줬다. 그 전답으로 소작을 줬고, 돈을 벌려줘 장리(고리채)를 받았다고 한다.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종손 최염(82)씨는 고등학교 졸업후 출향해 성균관 고문으로 있으며 최씨 종친회 중앙회장을 맡고 있다.

최염씨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나 ‘돈이 없어도 못 갚고 있어도 못 갚는 걸 어떻게 하겠나’며 채권 장부를 불살랐어요. 소작료도 절반으로 낮췄지”라고 말했다.

흉년에 논을 사지 말라고 한 가르침에 대해서 “흉년에 논을 내놓는 것은

절박한 처지 때문이지요. 우리가 그 논을 안 사도 다른 사람이 삽니다. 논을 안 사주면 안 되죠. 그 본뜻은 제값 주고 사라는 겁니다.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 부를 취득하지 말라는 것이죠”라고 밝혔다.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위협하는 지금 만석꾼이 넘는 재산을 모두 가난한 이웃에게 되돌려 주었던 최부자집의 나눔과 배려의 철학은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

부산보훈청 천안함 46용사 5주기 추모행사

부산보훈청은 천안함 용사 5주기를 맞아 전사자 추모행사를 비롯해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오는 26일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에서는 나라사랑부산협의회와 부산애국범시민연합 주최로 ‘천안함 5주기 추모 및 나라사랑 부산범시민 결의대회’가 열린다.

이날 행사는 50여 개 부산지역 종교·교육단체와 안보·보훈단체, 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천안함 46+1용사 훌콜, 대회사, 추모사, 추모시 낭독, 북한 무력도발에 대한 규탄사, 성명서 발표 등이 진행된다.

특히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 마감을 위한 캠페인으로 나라사랑

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희망을 북으로 표현하는 풍류도의 난타공연과 신덕중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나라사랑 태극기 플래시몹도 마련된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 및 나라사랑 거리 영상홍보 캠페인을 전개된다.

캠페인에서는 ‘천안함 용사와

그 기억’ 등 6종의 영상이 상영된다.

이와 함께 부산보훈청은 오는 31일까지 ‘천안함과 기억 SNS 퀴즈’ 이벤트와 ‘천안함 현장을 가다’ 사이버 추모사진전을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보훈청 블로그 와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giantsbohun>), 트위터 (<http://twitter.com/GiantsBohun>)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랑을 노래하는 봄햇살처럼 따뜻한 가수 장보윤

[김희동 기자] 트로트가수로 활동하는 장보윤(26)이 활동영역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의 매혹적인 목소리에 많은 음악 관계자들이 손을 내밀면서 같이 음반작업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2014년 6월 세미트로트에 가까운 곡의 음반을 발매한 장보윤의 1집 타이틀곡 '당신만을 사랑합니다'가 전국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서 장보윤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해 네이버 검색순위 6위에 오르기도 했다. 끊임없이 매력을 발산하는 장보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며 연습에 열중이다.

통기타 가수로 경주 충효동에서 '가주천'이란 라이브 민속카페를 운영하는 가수 장하영 씨는 30년 동안 무명가수로 활동하면서 경주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세시봉의 선두주자였다. 이제 그의 딸인 보윤씨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6년째 꾸준히 가수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난 2월 대구 TBC 다큐 프로그램인 '아버지'에 출연해 딸바보 아버지 '마이 웨이'로 시청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하영씨는 "보윤이가 정말 자랑스럽다"면서 "부모로서 큰 도움이 못 되지만 혼자의 실력으로 이 만큼 성장해 준 것이 너무 고맙다"며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했다.

가족은 나의 힘

보윤씨는 중1 때부터 노래를 잘하는 친구로 통했고 자신이 가수로서의 활동을 원했지만 그의 아버지 장하영씨는 자신이 겪은 이 길의 험난함을 알기에 딸이 가수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딸의 음악성을 알아 본 하영씨는 딸의 스승이자, 스폰서가 됐다. 어머니 역시 보윤씨의 뒷바라지에 전폭적인 힘을 보태면서 가수로서 성장에 큰 가교 역할을 했다.

보윤씨는 "원망도 많았고 방황도 했지만 지금 저의 상황에서 가족들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저 또한 지금의 가수 장보윤으로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그 누구보다 아버지 하영씨는 보윤씨의 헌신적인 도움을 줬다. 하영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주천' 라



이브카페에서도 딸의 홍보를 위해 짙은 팝방울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노랠 부르면서 딸 사랑에 여념이 없다.

올해 싱글 1집을 낸 장보윤씨는 "작사, 작곡해 주신 추가열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면서 "나도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작사, 작곡을 해 보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다.

소중한 나의 싱글 1집, 그리고 전국에서 섭외까지

사실 보윤씨의 1집 앨범 작업에는 아버지의 도움이 커다. 아버지가 딸

이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인들에게 이야기 했는데 음악 관계자에게 전해지면서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백치아마다'를 부를 적임자로 꼽혔다. 경북과 울산권에서 머물던 거의 행보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목소리가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전국 무대로 넓혀져 갔다.

그 발판이 됐던 것이 부산KBS '즐거운 저녁길' 라디오 생방송의 출연이었다. 스타가수 노래대결에서 쟁쟁한 실력파 신인들을 모두 제치고 4연승으로 우승했다. 실력으로 주위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후 많은 음악관계자들이 그를 주목했다. 윤수일 등의 뮤직비디오에 보윤씨의 음색은 주목을 끌기 충분했다.

현재 보윤씨는 윤수일씨의 전국투어콘서트에서 게스트(Guest)로 함께 할 정도로 그 능력을 평가 받고 있다. 거기에다 윤수일 작사 작곡의 곡들로 2집 앨범 작업이 한창이다.

이쯤 되자 광주, 대구, 서울 등 각지에서 섭외요청이 들어와 나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목표 MBC '즐거운 오후 두시' 선곡표에도 오르고 여타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선곡 상위권에 진입하고 있다.

주파수를 잘 맞추면 일주일 내내 각 지역방송국 라이브코너에 고정출연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월요일에는 울산TBC 오후 5시 20에서 6시에 '왔다 장보윤', 화요일에는 부산MBC 3시에서 4시 오후 만세에서 '장보윤의 노래 쿼서비스', 수요일에는 대구MBC '즐거운 오후 두시'에 '장보윤의 랄라라 라이브 퀴즈', 금요일에는 포항MBC 즐거운 오후 2시 '랄라라 콘서트' 등 게스트로 청취자들의 귀를 즐겁게 하면서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그녀는 "음반을 발매하고 각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맡거나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공인으로서의 행동과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며 "나의 음색을 듣고 장보윤이란 이름을 알 수 있게 대중들에게 남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각 SNS 매체에서도 장보윤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 오는 4월 11일에는 포항 해도공원에서 가요베스트 TV촬영이 있다. 가수 장보윤의 성장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그녀의 행보에 우리 모두가 주목하는 것이다.

수영영웅 박태환의 눈물

“수영장 밖의 세상에 무지, 씻을 수 없는 과오” 사죄

Profile

English

박 태 환/PARK, Tae-Hwan

출 生 : 1989년 9월 27일
 출 生 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직 업 : 대학원생 / 수영선수
 소 속 : [현재] 단국대학교 단국대학원
 [현재] 국가대표 수영선수

학 력 :

2002. 02 서울 도성초등학교(졸업)
 2005. 02 서울 대청중학교(졸업)
 2007. 02 서울 경기고등학교(졸업)
 2012. 02 단국대학교(졸업)
 2014. 08 단국대학교 단국대학원 (재학중)

군복무사항:

병역특례 (기간: 2012년 10월 4일~ 2012년 10월 31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 기초군사훈련 필



[강민경 기자] 금지약물 복용으로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1년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이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고 국민들께 사죄했다. 리우 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상황에서 당장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

연맹(FINA)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박태환은 3월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 관광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불미스런 일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무엇보다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물의를 빚은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박 선수는 도핑 양성 반응을 받았을 당시 자신의 심정도 털어놨다. 그

는 “다시 한번 이번에 발생한 결과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도핑 사실을 알게 된 후 지난 몇 개월은 매일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커던 게 사실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병원을 가지 않았더라면, 주사를 놓지 못하게 했다면,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하고 후회하고 자책했습니다. 수영 하나만 알고 수

영 하나로 사랑 받아온 제가 수영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 선수인지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럼에도 얼마나 과분한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했습니다.”라고 전했다.

박태환은 청문회에서 자신 같은 유명 선수가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가는 것을 방치했느냐는 지적을 받았다고 했다. 박태환은 자신이 수영장 밖의 세상에 무지했으며 하지만 과정에 상관없이 자신의 불찰이라며 후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국민들의 응원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가족과 수영연맹 관계자, 팬들, 그리고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함께 메달을 땄지만 자신 때문에 메달을 백털당한 동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거듭 사죄했다.

이와함께 어떤 비난과 직책도 달게 받겠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자신의 입장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던 박태환은 중간중간 복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리우 올림픽 참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태환은 국제수영연맹이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을 열어줬지만, 지금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좋은 선수로 마무리하고 싶지만, 스스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만큼 지금 미래를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수영이 삶의 전부였던 자신에게 자격정지 기간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겠지만 올림픽이나 메달이 아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드림저널은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농협 302 9338 8867 81(김영호/드림미디어)

드림저널은 중소기업과 문화사업에
디딤 언론으로 심층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주간지 발행을 시작하면서
독자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주)케이엠엑스
KMX Co.,Ltd



차선 페인트 제거장비 (SM-190/SM-540)



단일 차선 제거기



이중 차선 제거기



제품특징

- 특수 컷터로 차선 페인트 제거와 제거된 이물질을 동시에 흡입
- 파삭과 동시에 미세 분진 및 페인트 이물질을 싱크론 집진기로 흡입
- 기존 장비(디스크 힐 컷타)는 도로 손상 발생(깊이 5mm 이상)
- 당사 장비는 컷터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차선제거시 충격을 흡수하고 도로손상을 방지함



(주)케이엠엑스
KMX Co.,Ltd
<http://www.kemx.co.kr>

본사 :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3번길 35
사업소 : 경북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1963

전화 : 052-277-9890~1, FAX : 052-277-7966
전화 : 054-781-5330~1, FAX : 054-781-5332